

새로운 복음화와 고통받는 인간의 존엄성

편집자註 아래의 글은 지난 2월 4일(일) 오후 명동 대성당에서 거행된 ‘병자의 날’ 기념 미사에서 김수환 추기경이 강론한 내용으로 ‘질병으로 고통받는 병자 안에 그리스도가 현존함을 믿고 치유자이며 착한 사마리아인인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병자를 소중히 대하고 생명을 돌보는 이웃 사랑을 나누자’고 당부하고 있습니다.

친애하는 형제자매 여러분,

오늘 이 미사는 제9차 세계 병자의 날을 기리는 뜻으로 봉헌됩니다. 본래는 오는 11일, 다음 주일이 본 날입니다. 올해에는 호주 시드니 대성당에서 세계 병자의 날 미사가 교황님의 집전으로 거행될 예정입니다. 우리는 한 주일 앞서 거행합니다.

먼저 오늘 병자의 날 기념행사를 준비하고 주관하는 한국 가톨릭의사협회, 간호사협회, 호스피스협회, 병원협회에 그 수고에 감사드립니다. 동시에 이 기회에 주님께서 병고에 신음하는 모든 이에게 당신의 위로와 함께 치유의 은혜를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아울러 병자들의 치료를 위해 헌신하는 의사, 간호사, 간병인 호스피스, 원목실 신부님과 수녀님들, 그밖에 봉사하시는 분들, 가족들에게도 역시 은총과 힘을 주시도록 간절히 바랍니다.

그 중에서도 의료보험 혜택도 제대로 받지 못할 만큼 가난한 이들을 위해 자선진료를 하고 있는 모든 이들에게 특별한 감사를 드립니다. 성가복지병

원, 시흥 전진상복지관, 영등포 요셉의원, 성프란치스코의원, 도터병원과 봉사자들이 그 좋은 예일 것입니다. 그리고 주일날 외국인 노동자들을 위하여 헌신적 진료를 베풀고 있는 Raphael Clinic의 봉사자들에게 각별히 감사합니다. 동시에 가난한 처지에 버려진 환자들을 찾아 치료를 받을 수 있게끔 헌신적 봉사를 하고 계시는 분들, 특히 작은 자매회 수녀님들, 아울러 각 병원에서 호스피스 봉사를 정성껏 하심으로써 주님의 십자가 밑에 서서 주님이 겪으시는 그 고통을 예리한 칼로 가슴이 찢리듯 아플 만큼 함께 그 고통을 겪으시는 성모님과 같이 -임종하는 병자의 임종의 고통을 나누는 호스피스 모든 이에게 감사드리며 주님의 자비와 사랑 가득히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병고로 신음하는 모든 이, 질병에 시달리는 모든 이 안에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고통을 나누시며 현존하심을 굳게 믿습니다. 그리고 그분만이 참된 치유자이심을 믿습니다.

올해 세계 병자의 날의 테마는 “새로운 복음화와 고통받는 인간의 존엄성”입니다. 이것이 뜻하는 것은 이번에 발표하신 교황님 담화문 다음 구절에 잘 나타납니다.

“병원, 보건소, 양로원, 기타 고통받는 이들을 돌보는 모든 기관은 새로운 복음화를 위한 특별한 장소입니다. 바로 이런 곳에서 희망의 복음 메시지를 들을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합니다. 착한 사마리아

사람이신 예수님만이 평화와 구원을 찾는 모든 인간의 구세주이시며 그 인간을 전인적으로 구하시는 구세주이십니다. 이러한 까닭에 교회는 결코 지칠 줄 모르고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질병의 세계와 건강의 추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기를 얻을 수 있게 하여야 하겠습니까.”

한마디로 이 말씀은 우리가 환자를 대할 때 환자를 진찰하고 치료하고 수술하며 또 환자를 위해 투약하고 간병하는 등 환자를 위한 모든 의료 봉사를 할 때에 우리는 늘 그것이 단순히 의사로서 간호사로서 또는 약사로서만이 아니고(즉 전문의료 기술인으로서만이 아니고) 우리 “가톨릭중앙의료원 이념”말씀대로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자를 사랑으로 대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치료하고 그의 생명을 돌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치료, 간병, 행위 자체가 사랑의 치유자 그리스도를, 착한 사마리아인이신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것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시에 그만큼 환자 한 분 한 분을 소중히 대하고 그가 결코 한 병자에 불과한 존재만이 아니고 존엄한 인간임도 잊지 말고 존엄한 인간으로서 대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태오 복음 25장 31절 46절에서는 병자를 병문안하고 돌보는 것은 예수님을 돌보는 것과 같은 질의 사랑입니다. 주님 친히 “보잘 것 없는 형제 하나에게 해준 것이 곧 내게 해 준 것이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렇게 병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까? 그것은 이상이요 현실은 아직 거리가 멀다고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너무나 일이 많고 같은 일을 반복하다 보니 습관적으로 형식적으로 기계적으로 환자를 대하기 쉽고 때로는 환자를 병을 앓고 도움을 필요로 하는 인간으로보다 병이라는 매개를

통하여 돈을 주고받는 고객으로만 볼 수도 있습니다. 흔히 이런 말이 들립니다. 미국에서는 응급환자가 오면 그가 치료비를 낼 수 있는지 없는지 보험환자인지 아닌지 관계없이 인종이나 국적까지도 상관하지 않고 먼저 치료부터 한다는 것입니다. 여기 반하여 우리 병원에서는 급한 수술을 요하는 중환자일수록 수술비, 치료비를 부담할 수 있는지 알기 위해 보호자를 찾아 보증부터 받으려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확실치 않을 때는 환자를 제쳐놓기까지 한다고 합니다. 참으로 사람이 중한지 돈이 중한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언제인가 어느 수도회에서 운영하는 병원 원장 수녀님이 제게 이런 고백을 하는 것을 들었습니다. 그때 그 병원은 대대적인 수리 중이었습니다. 그래서 돈이 정말 필요할 때였습니다. 그러니까 병원장으로서 병원 경영상 외래 환자도 많고 입원 환자도 많고 하여 수리 중이지만 병원의 수지 타산이 맞아 들어가야 한다는 절박한 심경의 스트레스를 늘 받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그런 처지에 있었기에 그 수녀님 말씀이 병원장실에서 일을 보고 있을 때 밖의 큰길에 119구조 앰블런스가 사이렌 소리를 내면서 가까워질 때 그 차가 근처에 있는 다른 병원이 아니고 우리 병원에 오기를 바라는 마음 간절하였고 그래서 어느 때는 무의식중에 그 차가 어디로 가는가 하고 내다보기까지 했다고 합니다.

수녀님이 이 말씀을 하신 뜻은 병원 경영 책임을 지다보니 환자가 먼저 병원에 돈을 벌게 하는 고객으로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달리 표현하면 환자가 돈으로 보인 것입니다. -그만큼 당신 마음도 변화된 데 놀랐다는 의미의 고백이었습니다.(여기 이 고백은 고해성사의 고백이 아닙니다)

“환자가 돈으로 보인다” 이쯤 되면 위에 말한 병자의 날 테마 “새로운 복음화 또는 고통받는 이의

존엄성”에 담긴 정신과는 거리가 멉니다. 이 수녀님의 고백은 아마 우리 중앙의료원 산하 각 병원 또는 그 외 교회나 수도회 운영 병원의 운영 책임을 맡으신 병원장님들.... 대부분이 의식, 무의식 중 잠재의식으로 지니고 있는 심경이요 갈등일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 일하는 수녀님들 중에서도 직접 수납이나 회계에 책임을 맡으신 분, 구매과 책임을 맡으신 분들은 늘 수도자로서 돈이나 물품을 다루는 처지에서- 내가 왜 수녀로서 돈을 늘 취급해야 하는가? 하며 마음 괴로워하고 있다는 말도 들은 일이 있습니다.

저 자신도 전에 교구장 겸 이사장으로 있을 때 우리 병원이 잘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외래 환자는 많은지, 입원 환자는 찾는지 여부에 대하여 관심을 가지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면서 모든 돈 문제가 궁극적으로는 이사장인 제 이름으로 처리되니 누가 입원비를 내지 않고 가버렸다든지 할 때 또는 그밖에도 금전관계로 소송이 일어나면 전부가 이사장인 제 이름으로 고발하고 제 자신은 직접 모르면서 법원에 원고도 되고 피고도 된 일이 비일비재하였습니다. 어떤 때는 재판에서 승소해도 실제 돈을 받지 못할 때에는 상대방의 재산 압류까지도 제 이름으로 한다는 말을 듣고 제가 대단히 놀란 적이 있었습니다. 참으로 그럴 때마다 교회가 이렇게 밖에 병원을 운영할 수 없는지, 이런 식으로 병원 운영을 해야하는지 의심이 났습니다.

위에서 읽어드린 대로 교황님은 교회는 그리고 환자를 치료하고 간병하는 모든 이는 항상 “그리스도를 선포하여 질병의 세계와 건강의 추구가 그리스도의 빛으로 생기를 얻게 하라” 하셨고 착한 사마리아인 이신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환자를 대하라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곧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

입니다.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를 닮으라는 것은 지나친 요구가 아닌가”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더구나 신자도 아닌 분들에게는 거부감까지 일으킬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제가 처음으로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의사로서 선서한 “Hypocrates 선서”는 생명의 존엄성을 잉태된 순간부터 존중한다는 깊은 뜻이 담겨져 있습니다. 간호사들의 나이팅겔 선서도 환자의 안녕을 위해 헌신하겠다고 서약합니다. 여기에는 그리스도교적 신앙 여부와 관계없이 의사와 간호사는 그 직업의 본분으로 환자의 생명을 소중히 다루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뿐더러 우리말에 의술을 인술이라고 합니다. ‘인(仁)’은 유교에서 가장 완전한 덕을 말합니다. 공자님은 옛 임금들 중 요, 순을 언제나 가장 어질고 현명한 이상적 임금으로 평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요, 순도 ‘인’에 이르지 못했다고 말할 만큼 ‘인’은 모든 덕의 완성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뜻을 가진 ‘인’을 의사는 지녀야 한다는 것입니다.

동의보감을 쓰신 허준은 그리스도교를 전혀 모르는 분이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분은 환자들에게 신명을 바쳐 인술을 베푸신 분입니다. 그는 과거보러 가는 길에 중한 환자를 만났을 때 과거를 포기하고 환자를 먼저 돌볼 만큼 환자를 단지 병을 앓는 이로만 보지 않고 먼저 사람으로, 소중한 품위를 지닌 인간으로 즉 존엄한 인간으로 본 것입니다.

20세기에 가장 모범적인 의사는 누구입니까? 슈바이처 박사입니다. 이분은 물론 그리스도교적 신

양을 가진 분입니다. 그러기에 이분은 의사만이 아니고 선교사로서의 사명을 의식하며 사신 분입니다. 즉 그리스도의 사랑을 몸소 살고 Africa의 가장 가난하고 버림받은 환자들을 형제적 사랑으로 대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가장 닮으려고 노력한 분입니다. 때문에 이분을 20세기의 가장 위대한 의사로 모두가 존경하고 있습니다. 우리 나라에서는 홀로 월남하시어 부산에서 평생을 인술에 바치신 장기려 박사님이 또한 가장 존경받는 의사 선생님일 것입니다.

이렇게 볼 때 치유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닮고 그분의 마음으로 환자들을 사랑으로 대하여야 한다는 것은 결코 지나친 요구도 아니고 또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에게만 해당되는 것도 아닙니다.

모름지기 모든 인간은 윤리, 도덕으로도 존경받을 만한 인격체가 되어야 한다고 요구받고 있습니다. 즉 성인군자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성인이 되어야 하는 부르심을 하느님으로부터 받고 있습니다. 참으로 그렇습니다. 인간은 결코 아무렇게나 살아도 좋은 존재가 아닙니다. 양심적이고, 정직한 인간, 인정있고, 이웃을 존중하고 사랑할 줄 아는 사람이 참 사람입니다. 이것을 종교적으로 표현하면 인간 중에서도 가장 인간이신 그리스도를 닮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자비로우신 것 같이 자비로운 자 되라”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완전하신 것처럼 완전한 자 되어라” 하셨습니다.

질병은 그 자체 분명 고통이요, 불행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질병은 고통과 불행만이 아닙니다.

모든 선은 시련과 고통을 통해서 얻게 된다는 말이 있습니다. 운동 선수가 우승을 하고 Olympic에서 금메달을 따기까지는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스

러운 훈련을 겪어야 합니다. 마라톤 선수들은 그것은 결국 자기 고독과의 투쟁이라고 합니다. 이처럼 인생의 모든 분야에서 성공을 하려면 시련과 고통을 겪어야 합니다.

더구나 사람이 참으로 인생의 의미가 무엇인지 깊이 깨닫고 인간다워지려면 -그리하여 남의 고통, 병고까지도 이해하게 되고 앓는 이와 병고를 나눌 만큼 마음이 넓어지려면- 자기 스스로 먼저 많은 시련과 고통, 병고까지도 체험해야 합니다.

병자를 매일같이 대하는 의사도 자기가 병을 앓아보지 않으면 병자의 고통을 이해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러나 자신이 중병을 앓아 본다든지 하였을 때에는 병자에 대한 이해가 아주 달라집니다.

저는 가끔 의사 선생님이 병이나 교통사고로 입원하였을 때 병문안을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본인들로부터 이런 말을 듣습니다. “제가 이렇게 입원 환자가 되어 보니 환자의 심경을 이해할 것 같습니다” 이제는 환자를 대할 때 마음으로 고통을 나누며 대하여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볼 때 질병은 단지 불행만이 아닙니다.

질병은 인생에 대하여 우리의 눈을 뜨게 하고, 이웃의 고통을 이해하게 하고, 사람을 훨씬 동정심 많은 인간으로 변화시켜 주는 그 무엇을 가지고 있습니다.

뿐더러 더 깊이 병고는 우리 마음의 눈을 하느님께로 열게 합니다. 병고 때문에 하느님을 원망하고, 하느님이 계시다면 어떻게 나에게 이런 중병과 고통을 허락하실 수 있는가 하며 원망을 하다가도 차차 하느님의 은총의 덕으로 하느님이 그 병고를 통하여 ‘나’를 당신께로 이끌어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병자만이 아니

고 의사와 간호사를 비롯하여 원목 신부, 수녀, 호스피스, 가까운 가족, 문병하는 이, 봉사자 모두가 참으로 신앙심으로 병자를 위해 기도하고 사랑으로 그를 도와야 합니다.

이렇게 병고를 신앙의 빛으로 보게 되면 “질병은 더 이상 단순한 하나의 부정적 사건으로 비치는 것이 아니라 교황님께서 작년도 병자의 날 담화에서 말씀하신 대로 ‘질병은 하느님의 방문’인 동시에 사랑을 방출하고, 이웃을 위한 사랑의 일들을 탄생시키고 인간의 문명 전체를 사랑의 문명으로 변형시키기 위한 것으로 인식”될 것입니다.(2000년 병자의 날 교황 담화문)

맺음말

우리는 사실 그리스도의 십자가 고통의 의미를 깊이 묵상할 때 고통이 우리의 죄를 씻어주고, 고통이 하느님을 만나게 하고, 고통이 닫혀진 마음을 열

게 하고, 용서와 화해 사랑을 깊이 체험하게 하는 고차원의 것임을 깨닫게 됩니다. 불란서의 유대계 사상가로서 알려졌던 Simone Weil는 이런 뜻에서 “그리스도교의 위대함은 고통을 없이하는데 있지 않고 고통의 의미를 깨닫고 고통을 마음으로 받아 드리게 하는데 있다”라고 하였습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는 모든 병고에 신음하는 사람들 안에 현존하십니다. 이처럼 십자가 밑에 서시어 당신 아드님의 그 지극한 고통을 예리한 칼로 가슴을 찌르는 것 같이 느끼시며 그 고통에 동참하신 성모님께서 병고로 신음하는 모든 이 옆에서 계십니다. 우리는 이 성모님이 모든 병자들 특히 임종하는 이들에게 어머니의 사랑을 부으시며 언제나 마음으로 모든 병자들의 병고에 동참하고 계심을 깨달아야 하겠습니다. 아울러 우리 자신도 이렇게 병자와 병고를 나눌 만큼 이웃 사랑을 사는 사람되도록 기도합시다. 그것이 착한 사마리아인 이신 주님을 참으로 본받는 길입니다.

